

안전한 카드생활 도와주는 현대카드 서비스 사용처 등 자유롭게 설정하는 '락 앤 리밋'



현대카드(대표 정태영)가 해외직구를 할 때 한층 안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소개했다. 우선 현대카드의 '락 앤 리밋'(Lock & Limit)은 사전에 카드의 사용처와 사용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.

'락' 기능은 국내외 온·오프라인 결제를 클릭 한 번으로 제한할 수 있어 안전한 카드 생활에 도움을 준다.

고객은 '락'을 활용해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원치 않는 원화결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.

해외원화결제(DCC)는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(KRW)로 결제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부과된다.

'락 앤 리밋'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현대카드 앱으로 국내 및 해외 온·오프라인 결제와 해외 원화결제의 사용 여부를 손쉽게 설정할 수 있다.

해외 가맹점에서 부정결제를 시도하는 범죄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 분실 시 간단한 앱 실행만으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유용하다.

'가상카드번호' 서비스도 주목할 만하다.

온라인 등에서 카드 정보 유출에 대비한 서비스로 고객은 보유한 실제 카드번호와 연결된 가상의 카드번호를 손쉽게

발급받을 수 있다.

'가상카드번호' 서비스는 현대카드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별도의 서비스 이용료는 없다.

이 가상카드번호는 국내외 온·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.

해외결제에 특화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.

지난 8월 출시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'현대카드 the Green'은 해외 온·오프라인 결제와 항공사, 여행사, 면세점 등 여행 관련 사용처에서 파격적인 5% M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.

현대카드 관계자는 "락 앤 리밋과 가상카드번호 서비스를 활용하면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보다 풍성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"면서 "특히 해외결제 시 특화 혜택을 제공하는 'the Green' 상품을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을 것"이라고 밝혔다.

각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홈페이지(www.hyundaicard.com)에서 확인할 수 있다. ▼